2016.10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6년 10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6.10.31	대전MBC 대회의실	6/10	6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성정모, 정철상, 이승선, 강은혜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대표이사, 오승용 경영기술국장, 김미리 편성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최종명 방송기술부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8	6	-	1	15	-	15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1	3	1	15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8건	8건	9월
교양	지진대피요령 등 지진관련 정보 강화	아침이 좋다(9/21), 시사토론M(9/25), 시사플러스(10/6) 등 프로그램에서 지진관련 소개	9,10월
교양	토크 프로그램에 자료화면 보강	토크앤조이 “김형희(10/2), 가수 이상우(10/9), 작곡가 박현진(10/16), 한복인 박술녀(10/23)”등 자료화면 삽입	10월
기타	홈페이지 제보란 적극적 활용	홈페이지에 인터넷제보, 뉴스제보란 만들어 제작에 활용	10월
보도	지진 관련 긴급재난 뉴스 보다 다양하고 밀도 있게 전달	보도 9월에 9회, 10월에 5회 뉴스송출 “경주 지진, 충남 지진안전지대 아니다, 지진대피요령, 지진대피훈련” 등 방송	9,10월
교양	건강프로그램에서 자료화면 자극적이거나 혐오스런 장면 처리 유의하길	건강플러스 <TV주치의>코너 인체장기 영상 “혈액암(10/8), 장질환(10/22), 위암(10/29)” 등 시청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전달	10월
보도	여려운 제자를 돕는 교수들의 선행 같은 사회를 훈훈하게 하는 미담 뉴스 발굴	80대 노인의 불우이웃돕기 기부(9/25) 충남 아버지 아들 대물려 고액 기부(10/6)등 꾸준히 발굴 소개	9,10월
기타	홈페이지 기자 소개 네티즌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메일 첨부	홈페이지 기자 소개란에 이메일 첨부	9월
보도	재난방송 구축 확인 및 재난방송 송출시스템 준비	재난경보 2.0이상 하단 흘림자막, 재난방송캠페인 송출, 재난방송 확정되면 중계차 현장출동, 현지 생중계, 뉴스제작물 별도 제작 송출 등 구축	항시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임기: 2016. 5. 31.~2017. 5. 30.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정민근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협의회	과학기술단체	
	김학선	전 대전MBC 편성국장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	언론관련단체	
위원	장백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청소년단체	
위원	성정모	변호사	대전지방 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원	정철상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재)청소년과 사람사랑충남지회	청소년단체	
위원	이상진	충남연구원 연구실장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과학기술단체	
위원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방송학회	언론관련단체	
위원	박정훈	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신종성	골프존 네트웍스 대표이사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강은혜	대전YWCA 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대전YWCA	소비자단체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10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 일정기간 시행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캠페인을 들 수 있다. 현재 대전MBC의 라디오와 TV에서 운용하고 있는 캠페인을 살펴보면, 라디오의 경우는 청소년 캠페인, 경제 캠페인, 금강 보호 캠페인, 바른 교육 캠페인 등이 있고, TV 캠페인은 지역 농산물 관련 캠페인, 청풍명월(농산물) 캠페인, 특성화 고등학교 캠페인, 충남 자유 학기제 캠페인 등이 송출되고 있다. 위에 열거한 캠페인 중에, 라디오의 청소년, 경제, 금강 보호 캠페인은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대전MBC를 대표하는 캠페인이다. 캠페인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모두 나름대로의, 그 시대를 반영하는 타이틀과 함께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의미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대전MBC 라디오와 TV 캠페인을 큰 틀에서 획을 그어보면, 라디오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TV캠페인은 지역에 무게를 둔 locality면이 적지 않다.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 라디오 캠페인의 경우는 오랜 기간 운용되면서 오는 지루함(?)이 느껴진다. 시대를 반영한 새로운 맛이 부족 한 듯하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도외시 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TV캠페인은, 대부분의 캠페인에서 지역성이 강하게 부각되면서, 글로벌함이 떨어지는 느낌이다. 글로벌 시대,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캠페인도 있었으면 싶다. 필러용으로 제작된 '충청의 유산'은 시청하기에 부담이 없다. 지역 타 방송사의 캠페인 중에, ' 신화창조 한국의 과학자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눈에 들어오는 것 들이다(김학선).	캠페인은 협찬 또는 후원사와 연계된 것이 있고 자체적으로 제작한 공익적 성격인 것도 있다. 후원사와 연계되지 않은 캠페인은 시대를 반영하고 보다 더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게끔 제작하도록 하겠다.			
보도	보통 4~5개의 아이템을 담고 있는 MBC뉴스 이모저모, 간추린 소식 코너는 대전MBC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에서 감초 같은 역할을 한다. 스피디하고 , 깔끔하게 넘어가고 있어서 보기에 부담(?)이 없다.	"MBC NEWS 이모저모"에서 단신을 주로 전달한다. 단신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아이템에서 다른 아이템으로 전환할 때 효과음을 사용하고 있다. 시청자들이 부담없이 시청하게끔 효과	○		

	그런데 이 코너에서 최근 들어 듣기에 신경 쓰이는 게 있다. 아이템과 아이템이 넘어갈 때 들리는 ‘두 둥~’하는 효과음. 얼마 전 우리나라를 뒤흔든 지진과 요즘의 나라 사태 때문에 더 가슴을 파고든다. 두 둥~하는 소리에 어울리는 뉴스가 아닌 일반적인 내용들인데 최근 들어 더 어울리지 않는 듯싶다. 좀 더 가벼운, 싱그러운 효과음이 나을 듯하다(김학선).	음 수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			
교양	시사플러스(‘황혼의 그림자, 노후파산’편)에서는 노인빈곤 문제, 특히 노후파산으로 인한 노인빈곤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조기퇴직 및 수명연장으로 인해 장수 자체가 노후파산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 시대에, 이날 방송에서는 노후 파산의 양상과 노후파산의 위험성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진단과 예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방송에서 비교적 안정적 삶을 살던 분들이 노년이 들어 병원비와 자식부양으로 빈곤층으로 내려 앉은 사례를 들며, 파산 후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파악과 예방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법의 한 사례로 노인일자리와 인생이모작 사례를 들었는데 현 시점에서 가장 올바른 해법 제시란 생각이 들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분들에게 부족한 노후자금의 보충적 성격과 여가생활과 건강을 안겨다 주는 노인관련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다. 그만큼 노인 분들에게는 가장 관심이 많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업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시사플러스에서는 그동안 노인 분들의 가장 큰 바램이자 노인일자리 사업의 나아갈 방향인 3가지 사항을 가장 잘 짚어 주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년중 사업이 아닌 9개월 또는 11개월간 사업으로 인해 사업 종료 후 식사 한끼를 해결하고자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한 노인의 사례를 든 것이다. 지금도 복지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 건의가 가장 많고 일시적 한·두 달간만의 사업 중단으로 인해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 10년 동안 활동급여가 20만원으로 변함이 없다고 지적을 한 것이다. 세 번째로는 어르신들의 경력과 경륜을 활용한 시장형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 한 것이다. 시장형 일자리 창출은 년중 사업으로 초기 단계에는 국가 지	2020년 노인인구 20% 예상,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은 늙어가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그로 인해 드러나는 노인 빈곤 문제! 그리고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장수의 악몽, 노인파산! 노인파산은 노인이 병치레, 사업실패, 자녀 부양 등으로 노후 자금을 잃고 의식주에서 자립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먼저 발생한 노인파산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가 하루아침에 노인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누구나 노인이 된다. 또한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꿈꾼다. 하지만 노후파산 또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노후 파산을 통해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현실을 알아보고, 예비은퇴자 및 노인들을 위한 근본 대책은 없는지 모색해 보고자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앞으로도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인문제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			

	원에 의존하지만 점차 예산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소득 창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큰 사업인 것이다. 이번 시사플러스를 방청한 노인 시청자의 경우 많은 공감을 했을 것이다. 또한 복지현장에서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변화를 이끌어내 다소나마 노인빈곤을 예방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되었다고 생각한다(장백기).				
보도	조만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선별적·단계적 대응 위주의 대책과 전매제한 기간 확대, 청약조건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지역 내 많은 이들은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더라도 수도권 일부의 사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부동산대책이 발표가 된다면 우리 지역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영향과 어떤 적용을 받게 되는지 별건으로 보도를 해주었으면 한다(장백기).	11.3 부동산대책의 지역 효과에 대한 심층 뉴스를 제작해 송출했다. 아울러 시사토론M에서도 관련 아이템으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양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뉴스앤 이슈> 코너에서 권흥순 기자가 복잡다단한 국내외 핫이슈 뉴스를 알기 쉽게 정리해주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코너의 시간을 보다 확대하고 심층강화해주면 좋겠다(신종성).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뉴스앤 이슈>코너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0분에서 15분정도 권흥순 기자가 담당을 한다. 주부들이 이 시간대 주시청자층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의 중요뉴스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딱딱하지 않으면서 유익하게끔 운용하도록 하겠다.	○		
기타	대전MBC가 ABU총회에 참여하여 수백명 아시아인들 앞에서 대전MBC가 주최한 코이카 일자리 박람회, 로컬푸드 주말장터 등을 언급한 것은 참 보기 좋았다. 대전MBC가 지역에 머물지 않고 세계로 나아가는 좋은 사례로도 본다(신종성).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sia-Pacific Broadcasting Union)인 ABU는 69개국 278개 회원사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지역 방송사들의 연합체이다. ABU는 지난 1964년 회원사들 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뉴스와 프로그램 교환, 공동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기후변화와 정보기술 분야 등에서 해마다 여러 행사를 벌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는 행사는 총회이다. 대전MBC는 MBC 지역사에서는 유일한 ABU 회원사이다. 대전MBC의 경우 다큐멘터리 등 제작 능력이 아시아의 여러 방송국에 빠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에 가입했다. 이번 수백명 참석자 앞에서 대전MBC가 개최한 코이카 일자리 박람회나	○		

		로컬푸드 주말 장터, 대전MBC가 기획한 데미스 하사비스의 강연 등 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 이러한 활동은 꾸준히 하겠다.			
교양	대전MBC가 주관한 <장애인음악회> 현장을 직접 참관하였다. 야외에서 진행이 되었고 라디오로 방송을 하였다. 아쉬운 점은 <장애인음악회>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현장에서 운영상 안전과 질서에 대한 유의사항 전달이 미약했다. 적절한 안내방송이 필요했다. 외부행사 시 안전과 질서를 유도하기 위한 체계를 잘 갖추길 바란다(이상진).	야외행사는 전체적으로 잘 짜여진 흐름표를 갖고 만일의 불상사가 없도록 진행을 잘 해야 한다. 잎으로 라디오, 혹은 TV프로그램과 결부된 행사는 유념하여 진행하도록 하겠다.			
보도	아침 뉴스를 보면 전국뉴스와 지역뉴스 전체에서 날씨 소개가 4번 있다. 지역뉴스도 2번이 있는데 날씨를 한 번 정도는 줄여 청년 일자리, 문화행사, 미아찾기 등 요일별 특화를 해서 구성을 하면 어떨까? (이상진)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날씨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가 많다는 판단 아래 지역뉴스에서도 차별화한 2개의 날씨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다. CG 개편 등 비주얼 측면의 변화와 함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강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		○	
보도	뉴스데스크의 <MBC뉴스 이모저모>를 진행하는 여자 앵커의 자세를 보면 몸은 우측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서 있고 얼굴은 정면을 향하여 있다. 이 자세로 뉴스를 전달하는데 부자연스럽게 보인다. 시청자들이 보기에 편한 자세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박정훈).	시청자들이 보다 편하게 접할 수 있게끔 여자 앵커의 자세를 교정했다.	○		
보도	뉴스데스크(10월 18일)의 <앵커가 만난 사람>에서는 찰스 헤이 주한 영국대사가 출연하였다. 앵커의 질문은 한국어로 영국대사의 답변은 영어로 진행되었다. 외국인 출연 시 이왕이면 영어가 가능한 기자가 전담했으면 한다. 어차피 하단 자막으로 번역처리 되기 때문에 영어회화가 가능한 기자가 진행을 하면 신뢰가 더 있을 듯싶다(박정훈).	외국인과의 인터뷰를 회화 가능한 기자가 진행하는 문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	
보도	뉴스데스크(10월 18일)에서 <성심당 60년, 모두를 위한 경제> 리포트 뉴스를 보았다. 성심당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문화를 펼치는 업체이기도 하다. 이렇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좋은 업체는 발굴하여 계속 소개를 했으면 한다(박정훈).	성심당은 매월 3000만원 이상의 빵을 양로원과 고아원에 보내고, 이익의 15%를 직원 400명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또 직원들은 그렇게 받은 인센티브 중 20%를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한다고 한다. 2014년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성심당 빵을 선택한 이유에는 이 '나눔의 정신'도 한몫했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좋은 업체를 발굴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	○		

보도	대전MBC 뉴스에서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5회 이상 보도를 하였다. 17일 뉴스데스크에서는 <대전이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 안전대책 강화하라>, 18일 <사용 후 핵연료 파문, 주민소통 강화해야>라는 제목으로 연이어 핵연료 문제를 다루었다. 현재 원자력연구원에는 사용후 핵연료인 폐연료봉 1390개와 원전에서 이송된 손상 핵연료 309개 등 모두 총 3.3t 분량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관련해 허태정 유성구청장의 말을 빌려 방사성 폐기물의 반출 계획과 시설물 내진보강 등 종합대책을 제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18일에는 보관된 핵 폐기물이 전국 보관량의 0.004%로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핵폐기물 몰래 반입”이라는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핵연료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후속보도를 해주길 바란다. 아쉬운 점은 17일, 18일 영상화면이 비슷했다는 점이고, 핵연료보관량 0.004%를 전국지역별 컴퓨터그래픽으로 영상처리 하였다면 좋았겠다(박정훈).	대전의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다. ▲보관과 관리문제(계량관리, 보관 양의 적절성, 보관이유), ▲사용후핵연료 취급문제(이송, 저장, 부대설비, 보관시설 등), ▲이송시 만일의 사고에 대비되어 있는지 문제 등이 있다. 핵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지자체·주민과의 객관적인 소통채널이 필요하며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진과 상관없이 원자력은 위험하기에 꾸준히 안전대비에 힘써야 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인 감시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모두 함께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에 지속적인 보도를 할 예정이다.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CG를 강화하고 뉴스 화면 편집에도 더욱 유의하겠다.			
교양	<전국체전 성공개최기원 함께 가자, 나눔의 걸음>(10월 2일)이 다큐멘터리로 방송되었다. 전국대회체전이 잘 치루어지길 기원하면서 시민각자5,000원 기업이5,000원 합 10,000원씩 1인의 시민의 기부금이 모여 아산시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내용을 다루었다. 소재가 참신하였다. 체전 하면 전야제 축하쇼를 으레 연상하는데 시민들이 참여하는 나눔 걷기대회를 뜻깊게 조명하고 있어 보기 좋았다(정민근).	<전국체전 성공개최기원 함께 가자, 나눔의 걸음>은 전국체전 앞서서 시민들의 기부활동 내용을 전달하면서 전국체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기획하였다. 전국체전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데 이 점을 프로그램에서 나름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했었다.	○		
보도	시사토론 M에서 <긴급진단,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지진 발생 원인과 함께 문제점과 내진설계 등 대비책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 지진 내용은 전국 어느 방송사에서도 들을 수 있다. 대전MBC에서는 전국적 현상 이외에 추가하여 대전, 충남지역 공공기관 등 건물들이 내진설계가 어떠한지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떠한지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어졌어야 한다고 본다(정민근).	전문가들을 통해 옥천대를 중심으로 충청지역 지진발생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고 대전에 원자력연구원이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시설의 지진 대비책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또 대전시 관계자가 대전지역 건물 내진설계 현황을 비롯해 지진발생시 행동요령도 다뤘다.			○

교양	테마여행 길에서는 <예술이 흐르는 가을 제주아트투어>(10월13일)편을 방송하였다. 제주 예술활동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제주의 예술흔적의 길을 여러 곳 소개하다 보니 특정 장소는 수박겉핥기 식으로 짧게 소개하기도 했다. 이중섭 화가의 무대는 좀더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었다면 좋았겠다(정민근).	<테마기행 길>은 광역시급 9개 지역 MBC 공동제작 프로그램이다. 이번 편은 제주MBC가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공동제작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관계자회의를 한다. 프로그램 발전 내용들은 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다. 의견을 나누고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하겠다.			